

〈2018년 12월 15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성령〉을 많이 받고 싶으냐? 그러면 성령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성령과 한 몸 되어 일편단심으로 살아라. 연애할 때 사귀듯이 성령과 사귀어야 된다. 거기에서 사연이 생기고, 거기에서 정이 붙는 것이다.
2. 〈시대 역사에 하나님이 보낸 자〉는 성령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살아났기에 ‘성령과 일체 된 신부’가 됐다.
3. 잘해 주면 사랑으로 본다. 잘해 주고, 이해도 해 주고, 용서도 해 주고, 도와주고, 혼낼 것도 안 혼내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4. 〈영〉이신 하나님 앞에는 〈육신 자체〉가 ‘이성’이다. 육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5. 〈사랑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기에 그 나머지는 그냥 통달하게 되었다. 최고의 사랑의 세계, 사랑의 원자폭탄의 세계가 바로 성약역사다. 〈사랑〉이 없으면 성약역사에 도전을 못 한다.
6. 〈사랑〉도 배우고 알고 해야 사랑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불이 붙어 살아 보지 않고는 사랑의 낮은 단계로 본다.
7. 〈구시대〉는 “더는 없다. 더 이상 없는 세계다. 성경의 인봉을

다 떼서 살고 있다.” 한다. 무조건 의롭게 행했으면 천국에 올라간다고 해석한다. 성경의 세계는 성경을 풀고 해석하는 대로 차원이 있다. <육적인 자들>은 육적으로만 본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오는 것으로 믿었다.

8.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는 해석하기를, “하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절대 믿는 사람, 절대 사랑하는 사람, 미리 준비된 자를 통해 오신다.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직접 오시는 것이다.” 하고 해석한다. 성경의 해석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해 버린다. 보낸 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쓰고 하시는 것이다.

9.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으로 여건을 틀어 버리고, 환경을 틀어 버린다.

10. 그때마다 이치에 맞게, 합당하게 따져야 된다. <예수님>은 와도 ‘신약 주관권’ 이다. <새 시대, 성약역사>는 ‘신약의 말씀’ 을 가지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역사다. <하나님 주관권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시대의 주관권’ 에 가서 사는 자들만 안다.

11. <성약>은 그중에서 뽑고 뽑은 자, 사랑의 대상체를 통해 역사를 편다. <사랑하는 자>에게 안 기울 수가 없다. <사랑의 세계>다.

12. 알고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모르고 믿은 대로 그냥 역사

를 해 버리지 않았다.

13. 주가 성령체가 되어서, 보이는 성령이 되어서 말씀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다. 순간에 수만 가지를 깨달아 버린다.
14. <성령>을 ‘자기 성령’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이나 개인은 복 있는 자들이노라.
15. <하나님>을 분석해 보면 ‘말씀체,’ <성령>을 분석해 보면 ‘사랑체’다. <주>는 ‘말씀체’다. <시대 신부들>은 ‘시대 하와’를 중심해서 사랑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
16. <새로운 역사>는 구시대 말씀을 가지고서는 이를 수가 없다. <구시대 말씀>으로는 ‘휴거’도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휴거다. <휴거의 비밀>은 ‘사랑’이다.
17.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본인이 깨닫고 알면, 깨달은 것 자체가 지혜가 된 것이다.
18. <성령>을 제대로 못 받아도, 성령이 원하는 ‘행실’을 하면 그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다.
19. <성령>에는 ‘기쁨의 성령’이 있다. 또, ‘깨닫게 하는 성령’이 있다. <성령>은 여러 가지로 역사 하시면서 다양하게, 재미

있게 성령의 역사를 해 오셨다.

20.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잘 모른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이 계획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잘 모른다. 후에 사연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 ‘아, 이런 구상으로 하나님과 성령이 밀어붙이고 하셨구나!’ 하고 알게 된다.

21. <성령>은 주의 시중을 들러 왔다. 하나님이 주를 쓰고 행하시니, 땅에서 그의 시중을 들어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때문이다.

22. 네가 성령을 떠나지 않으면 성령도 너를 떠나지 않는다.

23. (성령님) 네가 나를 사랑해야 나도 너를 사랑한다. 성서에 있는 말씀같이, 네가 행한 대로 나도 그대로 한다는 말씀이다.

24. <성령 생각>을 잊으면 안 된다. 잊지 않으려면 ‘사랑’을 해야 된다. <성령>이 자기 사랑하는 남편,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도 큰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25. <성령>과 그때마다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대화하여라. 그리하면 성령이 네가 할 일을 구상해 주시고, 네 몸을 쓰고 계속 행하신다.

26. 가령 <새들>과 같이 살려면, 새소리를 내며 새와 같이 장단을 맞추며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이 상대와 같이 살아 줘야 같이 사

는 것이지, 같이 안 살고는 같이 안 살아지는 것이다. 모든 것이 그러하다.

27. <성령>을 사랑하지 않고, 일체 되어 살지 않고서는 그 어떤 자라도 기쁨과 이상의 세계를 이루며 살 수가 없다.

28. <휴거된 자>는 ‘성령님과 말씀’을 사랑하며 산다. 고로 <성령>으로 배우고 깨닫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도 <주>도 ‘신랑’으로 삼고 사랑하고 좋아하며 살게 된다.

29. <성령>이 깊은 것도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신혼골수를 쪼개어 보시며 깨닫게 해 주시니, 이를 깨닫고 알아라.

30. <성령>은 ‘하나님과 일체 되어 사는 절대적인 존재자, 사랑의 핵심자, 전지전능하고 아름다운 여신’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최고로 잘 알고 행하신다. 고로 그 신과 일체 되어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대상이 될 수 있다.

31. 휴거 후 성자가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신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근본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 성령님은 ‘절대신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다.

◎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기도해 주겠습니다.